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8.19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지난주 한눈에

지난주는 겉으로 보이는 물가지표는 잠잠했지만, 그 밑에서는 채권시장이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한 주다.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월비 0.1% 올라 6 월의 마이너스(-0.4%)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근원물가는 오히려 2.6%에서 2.5%로 낮아져 표면적으로 안정적이다.

문제는 속이다. 생산자물가(PPI)는 헤드라인 포함이었지만, 식품·에너지를 뺀 '진짜 기초체력' 지표(코어코어)의 전월비 상승률이 0.1%에서 0.4%로 뚜렷하게 가팔라졌다. 소매판매도 -0.6%로 처음 유의미하게 꺾였지만 자동차·휘발유를 뺀 기저 수요는 포함권이라 소비 둔화보다는 감속 진입 쪽에 가깝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 만 9 천 건으로 늘었어도 4 주 평균은 전주와 같아 고용은 아직 버티고 있다.

아시아·유럽에서는 방향이 더 뚜렷했다. 한국은 수출이 26.5% 늘고 코스피가 주간 10% 급등(1 년 기준 상위 80% 구간)하며 위험선호가 강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에도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2.7%에서 2.8%로 오르는 등 고용의 질은 살짝 늘렸다. 일본은 4~6 월 GDP 가 전기비 0.3% 성장했지만 실제로는 수입 급감과 재고가 끌어올린 결과로, 내수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대신 채권시장에서는 일본 10 년물·2 년물 금리가 각각 9 거래일·6 거래일 연속 상승해 1 년 기준 최상위권을 재차 경신했는데, 이는 미국·유럽 장기금리 상승(커브 스티프닝, 장기채 이자 부담이 단기채보다 빠르게 커지는 흐름)과 같은 방향이라 하우스가 보는 '텀 프리미엄 재가격화' 흐름의 근거가 됐다.

중국 신규대출이 예상(450 억위안)과 반대로 3400 억위안 감소해 신용수요 위축이 재확인됐고,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6 개월째 동결하며 총량완화 대신 재대출 같은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자금 흐름에서도 채권형 펀드는 순유출(순유입비중 49.0%)인 반면 주식·상품형은 순유입 우위를 보여, 금리 상승을 피해 자금이 이동하는 그림과 맞아떨어진다.

다음주 꼭 볼 것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은 8 월 21 일 무더기로 나오는 미국·독일·유로존·일본 PMI(구매관리자지수, 기업 체감경기)다. 미국 서비스업(54.6→54.0)·제조업(53.9 포함) 모두 확장권(50 이상) 유지가 전망되는 가운데, 뉴욕 연은 서베이류 지수가 41.4 에서 25.0 으로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돼 이게 지역 서베이 특유의 변동성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8 월 19~20 일에는 유로존·영국·일본 CPI 가 잇따라 나오는데 영국(2.6→2.9%)·일본(1.6→1.8%) 모두 상방 전망이라 각각 BOE·BOJ 의 긴축 명분을 뒷받침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20 일 중국 LPR 동결 여부,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210 천 명 전망)도 참고할 신호다.

정책금리 선물시장은 9 월 FOMC 동결(61%)을 가장 유력하게 보면서도 12 월로 갈수록 인상 확률(70%)이 높아지는 그림을 반영 중이라, '인하 기대'보다는 '동결 장기화 속 인상 리스크'라는 틀로 다음주 지표들을 읽는 편이 실제 시장 가격과 맞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12	미국	소비자물가(CPI)	0.1 3.4	-0.4 3.5	0.1 3.4	전월비 % 전년비 %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비 0.1% 상승해 6월의 0.4% 하락에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 반등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하락폭이 줄어든 데 따른 산술적인 효과이고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는 전년동월비 2.6%에서 2.5%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새로운 물가 압력이 생겼다고 보다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 가까우며, 이번 결과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논거를 새로 강화하지 않는다. 다만 저희 팀의 기준 시나리오는 인화가 아니라 동결 장기화이며, 이 판단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는다. [심층]
08/12	독일	소비자물가(HICP, 확정)	0.9 2.8	0.9 2.8	0.9 2.8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9%·전년비 2.8% 모두 예상 부합, 인플레이 경로에 새로운 신호 없음.
08/12	일본	생산자물가(PPI)	0.6 7.4	0.4 7.1	0.1 7.2	전월비 % 전년비 %	일본 7월 국내기업물가지수(CGPI, 기업간 거래되는 상품의 도매 단계 가격지수로 소비자물가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는 전년 대비 7.2% 올라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름철 전기요금 할증분을 제외하고 보면 전월 대비 상승폭은 0.0%에서 0.2% 사이로 사실상 정체됐다. 높은 전년비의 상당 부분은 1년 전 수치가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지난 2분기 가격이 한 단계 뛰어오른 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영향이며, 새로 발생한 압력은 엔화 약세와 반도체의 해외 판매가격 상승 두 갈래로 좁혀지고 있다. [심층]
08/12	한국	고용보고서	—	—	—		7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7천 명 늘었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고용률은 0.1%포인트 낮아졌고, 계절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도 2.7%에서 2.8%로 올라 월간 흐름은 다소 둔화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경제활동참가율이 65.0%로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도 낮아진 점을 보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며 나타난 악화라기보다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데도 그 인력을 받아들이는 힘과 일자리의 구성이 예전만 못해진 모습에 가깝다. 증가분이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그리고 60세 이상·30대·50대 연령층에 몰려 있어 이번 지표만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수요가 살아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심층]
08/13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2.0	199.0	209.0	천명	8월 8일 주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9천 건으로 전주 수정치(20만 건) 대비 9천 건 늘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은 19만 9천 건으로 전주와 완전히 같아 노동시장 냉각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심층]
08/13	미국	생산자물가(PPI)	0.2 4.9	-0.3 5.5	0.0 4.7	전월비 % 전년비 %	7월 생산자물가는 전월 대비 보합(0.0%), 전년 대비 4.7%로 표면적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에너지와 식품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중의 근원 지표, 즉 코어코어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에서 0.4%로 뚜렷하게 가팔라졌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물가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오히려 더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심층]
08/13	유로존	산업생산	0.0 -0.8	-0.2 -1.2	0.0 0.1	전월비 % 전년비 %	유로존 6월 산업생산, 헤드라인은 보합이지만 자본재와 중간재가 동반 둔화하며 생산 앞단이 식고 있다 [심층]
08/13	영국	GDP(월간)	0.0 0.8	0.1 1.3	0.3 1.1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3%로 예상(0.0%) 크게 상회했으나 전년비는 1.1%로 이전(1.3%)보다 둔화, 성장 모멘텀은 견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13	영국	제조업 생산	-0.2 1.2	0.1 2.3	-0.5 0.5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5%·전년비 0.5% 모두 예상 하회, 영국 제조업 부문 약세가 뚜렷해짐.
08/13	영국	GDP(3 개월 이동)	0.4	0.7	0.4	%	3 개월 이동평균 0.4%로 예상 부합, 영국 성장세 완만한 개선 기조 유지.
08/14	미국	소비자심리(미시간대, 속보)	54.5	55.2	51.0	p	8 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서베이)는 헤드라인 20.6 으로 확장 국면을 이어갔고 하우스가 참고하는 7 월치 15.6 과 비교하면 상당폭 개선됐다. 다만 세부를 뜯어보면 이번 달 강세를 이끈 힘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수요 확대가 아니라 물류 지연과 투입비용 상승 같은 공급 측 부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기업이 매기는 원자재·부품 가격 지수가 다시 뛰어올라 물가 압력을 걱정하는 지금 국면에서는 이 지표를 단순한 호재로만 읽기는 어렵다. [심층]
08/14	미국	소매판매	0.1 —	0.2 6.72	-0.6 5.01	전월비 % 전년비 %	7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처음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기저 수요는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러 있어 소비 둔화를 확정 짓기보다는 감속 국면 진입을 확인하는 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층]
08/14	유로존	무역·수출입	—	-5.0	1.8	십억€	유로존 6 월 상품무역수지가 86 억유로 흑자로 전월 90 억유로 적자에서 전환됐지만, 계절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실제 개선폭은 79 억유로 수준이고 그 개선조차 수출이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수입이 2.1% 줄어든 결과다. 상반기 누계로 보면 유로존 흑자는 822 억유로에서 98 억유로로 쪼그라들었고 EU 는 741 억유로 흑자에서 149 억유로 적자로 돌아섰으며, 2 분기 흐름도 수출 증가율(5.6%)이 수입 증가율(8.6%)에 못 미쳐 수지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월 숫자만 보고 무역수지가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심층]
08/14	유로존	GDP(잠정)	0.4 1.0	0.4 1.0	0.4 1.0	전기비 % 전년비 %	유로존 2 분기 성장률, 0.4%로 반등했지만 내용은 고르지 않다 [심층]
08/14	프랑스	소비자물가(CPI)	0.6 2.1	0.6 2.1	0.6 2.1	전월비 % 전년비 %	전월비 0.6%·전년비 2.1% 모두 예상 부합, 프랑스 인플레이 경로에 새 정보 없음.
08/14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45.0	1610.0	-340.0	십억위안	신규 위안화대출 -340 십억위안으로 예상(45.0) 대비 급감, 가계신용 위축이 지속되는 신호.
08/14	중국	사회용자총량	1200.0	3360.0	1410.0	십억위안	사회용자총량 1410 십억위안으로 예상(1200) 상회, 구조성 재대출 확대가 총량을 방어.
08/14	중국	통화량(M2)	7.9	8.0	7.7	전년비 %	M2 전년비 7.7%로 예상(7.9%)·이전(8.0%) 모두 하회, 통화 창출 둔화 지속.
08/15	한국	수출 증가율	—	62.8	63.0	전년비 %	수출 전년비 63.0%로 이전(62.8%)보다 소폭 개선, 기저효과 감안해도 모멘텀 견조.
08/15	한국	수입 증가율	—	26.5	26.5	전년비 %	수입 전년비 26.5%로 이전과 동일, 수입 수요에 변화 없음.
08/16	일본	GDP(1 차 잠정)	0.5 2.0	0.5 1.8	0.3 1.1	전기비 % 전기비 연율 %	일본의 2026 년 4~6 월기 국내총생산(GDP) 1 차 속보치는 실질 기준 전기 대비 0.3% 성장(연율 환산 1.1%)으로 표면적으로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을 이끈 것은 내수가 아니라 수입 급감과 채고 요인이었다. 국내 수요의 실질 성장 기여도는 오히려 마이너스 0.2%포인트로 돌아섰고, 이는 통화정책 판단에 곧바로 연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심층]
08/16	영국	주택가격(Rightmove)	— —	-1.0 -0.4	-2.0 -1.0	전월비 % 전년비 %	Rightmove 주택가격 전월비 -2.0%·전년비 -1.0%로 이전(-1.0%/-0.4%)보다 낙폭 확대, 주택시장 냉각 심화.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17	중국	소매판매	1.5	1.0	0.6	전년비 %	중국의 7 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에 그치며 증가폭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부진의 대부분은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구매세 감면과 이구환신 보조금이 집중됐던 기저를 벗어나며 나타난 되돌림 성격이 강하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2.5% 증가로 완만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 전반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이르다. 부동산과 맞물린 인테리어·가구 관련 소비의 부진만큼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이 실제로 눈여겨봐야 할 압력이다. [심층]
08/17	중국	고정자산투자	-6.0	-5.7	-6.7	전년비 %	중국 1~7 월 누계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해 직전 발표치인 5.7% 감소보다 감소폭이 1.0%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번에는 그동안 하방을 지탱해 온 인프라 투자(3.6% 감소)와 국유기업 주도 투자(3.3% 감소)까지 감소로 돌아서면서, 정책이 투자 둔화를 방어하는 구도가 이번 발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통계국이 전년 동기 수치를 수정하고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증가율을 다시 산출했다고 밝힌 만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하지만 감소폭의 크기는 통계 정비 효과가 일부 섞여 실제보다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심층]
08/17	중국	산업생산	4.8	5.3	4.5	전년비 %	한 줄 요약: 중국 7 월 공업생산은 헤드라인상 4.5% 증가를 유지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전자·자동화 설비라는 좁은 영역의 강한 확장이 건설 연계 소재와 국유 중후장대 업종의 감산을 간신히 상쇄하는 구도이며, 제품판매율 하락이 보여주듯 이 생산 증가는 아직 실수요로 확인되지 않았다. [심층]
08/17	중국	실업률	—	5.0	5.2	%	실업률 5.2%로 안정적 수준 유지, 고용시장에 새로운 균열 신호 없음.
08/17	일본	산업생산	—	1.3	1.9	전월비 %	일본의 2026 년 6 월 광공업생산지수는 계절조정 전월비로 생산이 1.9% 늘며 두 달 연속 정체 흐름에서 벗어났고, 전년동월비도 4.9% 플러스로 돌아섰다. 다만 같은 기준으로 출하는 0.2% 줄어드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재고는 2.8% 늘었으며 재고율은 4.1% 확대돼 네 개 계열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생산만 놓고 보면 개선이지만,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쌓이는 조합은 원해서 쌓은 재고라기보다 팔리지 않아 남은 재고 쪽에 가깝다. 다만 출하 감소분에는 인도 일정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 일회성 요인이 상당 부분 섞여 있어, 이 판단의 강도는 다음 달 지표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층]
08/18	미국	주택착공	1.35	1.427	1.239	백만호	미국 7 월 주택착공·건축허가: 파이프라인은 두꺼워지지만 착수 단계에서 막혀 있다 [심층]
08/18	미국	산업생산	0.3	0.1	0.2	전월비 %	7 월 산업생산은 헤드라인과 제조업이 나란히 전월대비 0.2% 늘며 완만한 확장을 이어갔으나, 기업설비 생산이 강하게 늘어난 반면 소비재 생산은 전년 대비 뒷걸음질하는 이분화가 뚜렷해졌고, 가동률은 여전히 장기평균을 밑돌아 생산 측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어렵다. [심층]
08/18	미국	수입물가	—	7.1	6.0	전년비 %	7 월 미국 수입물가: 헤드라인은 내렸지만 속은 오르고 있다 [심층]
08/18	독일	ZEW 현재상황지수	-69.5	-77.6	-61.1	p	ZEW 현재상황 -61.1 로 예상(-69.5) 상회, 낙폭이 예상보다 완만해 저점 다지기 시사.
08/18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	30.0	26.3	34.2	p	ZEW 기대지수 34.2 로 예상(30.0) 상회, 향후 경기 기대 개선이 이어짐.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기준	분석
08/18	일본	기계수주	7.8 10.8	-12.4 -1.9	9.7 16.9	전월비 % 전년비 %	기계수주 전월비 9.7%·전년비 16.9% 모두 예상 큰 폭 상회, 설비투자 회복 신호로 해석.
08/18	영국	실업률	4.8	4.9	4.9	%	실업률 4.9%로 예상(4.8%) 소폭 상회, 영국 노동시장 완만한 냉각.
08/18	영국	민간 정규급여(3 개월 평균)	—	2.9	2.8	전년비 %	민간 정규급여 전년비 2.8%로 이전(2.9%)보다 소폭 둔화, 임금상승 압력 완화 신호.
08/18	영국	실업수당 청구자 변동	—	6.7	-11.0	천명	실업수당 청구자 -11 천명 감소, 고용 위축 우려를 일부 완화.
08/18	영국	PAYE 고용자 수 변동	—	-4.0	-13.0	천명	PAYE 고용자수 -13 천명 감소, 청구자 감소와 달리 정규직 고용은 소폭 위축.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8/19	유로존	소비자물가(CPI, 확정)	0.2 2.9	-0.1 2.9	전월비 % 전년비 %	확률가중: Bund 2Y 미세 하방 편향(컨센서스 부채로 서프라이즈 임팩트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관전포인트: 0.0% (전월 수준) 유지 여부 — 근원 MoM 이 4 개 지표 중 ECB 경로에 가장 직결 [시나리오]
08/19	일본	무역·수출입	- 680.0	- 406.9	십억엔	적자폭이 전월 -406.9 십억엔에서 -680.0 십억엔으로 확대될 전망 — 유가 급등발 수입액 증가 반영 여부를 확인.
08/19	영국	서비스 소비자물가	0.5 3.4	0.5 3.6	전월비 % 전년비 %	서비스물가 전년비는 3.6%→3.4%로 소폭 둔화 전망 — 근원 인플레이 압력 완화 여부가 BOE 판단의 핵심 변수.
08/19	영국	소비자물가(CPI)	0.3 2.9	0.1 2.6	전월비 % 전년비 %	헤드라인 전년비는 2.6%→2.9%로 재가속 전망 — 서비스물가 둔화와 엇갈리는 신호라 BOE 판단이 더 꼬일 수 있다.
08/20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10.0	209.0	천명	신규 청구 210 천명 전망(전주 209 천명)으로 노동시장은 안정권 유지 전망 — 서프라이즈 여부만 확인.
08/20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지수	25.0	41.4	p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41.4→25.0 으로 큰 폭 둔화 전망 — 전월 서프라이즈 되돌림인지 추세 둔화인지가 관건.
08/20	중국	기준금리 결정	—	3.0	%	1 년 LPR 3.0% 동결 유지가 유력 — 총량완화 보류·구조성 도구 확대라는 최근 PBOC 기조 연장 여부를 확인.
08/20	일본	소비자물가(CPI, 신선식품 제외)	1.8	1.6	전년비 %	근원(신선식품 제외) CPI 전년비는 1.6%→1.8%로 가속 전망 — BOJ 매파 전망(하반기 2% 상회)을 뒷받침하는 재료.
08/20	일본	소비자물가(CPI, 종합)	—	1.7	전년비 %	헤드라인 CPI 전년비는 전월 1.7% — 근원치 가속 여부와 함께 BOJ 9 월 인상 논의 재료로 볼 지표.
08/21	미국	종합 PMI(S&P) 속보	—	54.5	p	종합 PMI 는 전월 54.5 — 확장 국면 유지 여부와 함께 유가 급등에 따른 투입비용 항목을 확인할 변수.
08/21	미국	제조업 PMI(S&P) 속보	53.9	53.9	p	제조업 PMI 는 53.9 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전망 — 확장세 정체 여부를 확인.
08/21	미국	서비스업 PMI(S&P) 속보	54.0	54.6	p	서비스업 PMI 는 54.6→54.0 으로 소폭 둔화 전망 — 확장권 유지 속 성장 모멘텀 둔화 여부.
08/21	유로존	서비스업 PMI 속보	51.5	51.7	p	서비스업 PMI 는 51.7→51.5 로 소폭 둔화 전망 — 확장권 내 완만한 조정.
08/21	유로존	제조업 PMI 속보	51.8	51.9	p	제조업 PMI 는 51.9→51.8 로 거의 보합 전망 — 확장 국면 지속 여부를 확인.
08/21	프랑스	INSEE 제조업 기업경기	101.0	101.0	p	제조업 기업경기는 101.0 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전망 — 뚜렷한 방향성 부재.
08/21	프랑스	제조업 PMI 속보	50.0	49.8	p	제조업 PMI 는 49.8→50.0 으로 기준선 회복 전망 — 위축권 탈출 여부가 관전포인트.
08/21	프랑스	INSEE 기업경기	98.0	97.0	p	기업경기 지수는 97.0→98.0 으로 소폭 개선 전망 — 완만한 심리 회복 지속 여부.
08/21	일본	서비스업 PMI 속보	—	51.2	p	서비스업 PMI 는 전월 51.2 — 확장권 유지 여부를 확인.
08/21	일본	제조업 PMI 속보	—	54.5	p	제조업 PMI 는 전월 54.5 로 강한 확장세 — 이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관건.
08/21	일본	종합 PMI 속보	—	52.7	p	종합 PMI 는 전월 52.7 — 제조업 호조가 서비스업 둔화를 상쇄하는 구도가 이어지는지 확인.
08/21	영국	제조업 PMI 속보	51.5	51.9	p	제조업 PMI 는 51.9→51.5 로 소폭 둔화 전망 — 확장권 내 모멘텀 약화 여부.
08/21	영국	종합 PMI 속보	51.6	52.2	p	종합 PMI 는 52.2→51.6 으로 둔화 전망 — CPI 재가속과 맞물린 성장 모멘텀 약화 신호인지 확인.
08/21	영국	소매판매	-0.5 2.2	1.0 4.2	전월비 % 전년비 %	소매판매는 전월비 1.0%→-0.5%, 전년비 4.2%→2.2%로 큰 폭 둔화 전망 — 소비 모멘텀 약화 확인이 핵심.
08/21	영국	서비스업 PMI 속보	51.8	52.1	p	서비스업 PMI 는 52.1→51.8 로 소폭 둔화 전망 — 확장권 유지 속 완만한 조정.
08/21	영국	소매판매(연료 제외)	-0.5 3.3	1.1 5.4	전월비 % 전년비 %	연료 제외 소매판매도 전월비 1.1%→-0.5%, 전년비 5.4%→3.3%로 둔화 전망 — 헤드라인과 같은 방향 신호.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기준	관전포인트
08/25	미국	소비자신뢰(콘퍼런스보드)	91.2	90.8	p	소비자신뢰지수는 90.8→91.2로 소폭 개선 전망 — 저점권에서의 완만한 반등 지속 여부.
08/25	미국	신규주택 판매	0.621	0.628	백만호	신규주택 판매는 62.8만→62.1만호로 소폭 둔화 전망 — 주택 부문 약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지표.
08/25	독일	GDP(수정)	— —	0.2 0.9	전기비 % 전년비 %	확률가중: EUR/USD 약보합 편향, ECB_policy_bias 중립~비둘기 소폭 편향 · 관전포인트: YoY 1.0% 기준선, GDP QoQ 와 방향 일치 여부가 반응 강도 결정 [시나리오]
08/25	일본	서비스물가(SPP)	—	3.2	전년비 %	확률가중: JPY_view 약보합 편향, BOJ_hawkish_prob 확률가중 중립~미세 하향 (Miss 30% > Beat 20%) · 관전포인트: -1.4% (전월) 기준, -2.0% 이하시 엔 캐리 재개 및 매파 서사군 신뢰도 저하 트리거 [시나리오]
08/25	일본	경기선행지수(변화폭)	—	0.0	p	경기선행지수 변화폭은 전월 0.0p — 방향성 부재 지속 여부를 확인.
08/26	미국	PCE 물가	0.1 —	-0.1 3.7	전월비 % 전년비 %	PCE 는 전월비 -0.1%→0.1%로 반등 전망, 전년비는 전월 3.7% — 유가발 인플레이 서사와 맞물려 Fed 경로 재료로 주목.

자료: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